“사찰에 일이 아니라 수행하러 왔습니다”

日스님, 업무 폭탄에 사찰 고소
“수행에 집중하고 싶다” 호소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스님들의 과로 문제로 고소를 당한 고야산 사찰의 전경.



매일 찾아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늘 과로에 시달리는 고야산 스님들.

일본의 명소로 알려진 한 사찰이 소속 스님에게 고소를 당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 스님은 사찰에 있으며 과도한 업무로 우울증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더 텔레그래프’는 5월 17일 “과로에 우울증까지 걸린 스님이 사찰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한 스님과 고소를 당한 사찰은 익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야산 지역의 가장 인기가 많은 성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한 스님은 “수행을 하고 싶었으나, 조금도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에 계속 치여 상처만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님의 변호를 맡은 노리타게 시라쿠라는 AFP통신에 “원고는 2008년부터 사찰서 일을 시작했다. 2015년도 5월과 10월은 순례와 단풍시즌을 명목으로 한달 내내 쉬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경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일본사찰들은 관례적으로 오후6시 전에 업무가 종료되는데 스님은 매일 밤 9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의 일부라고 강요당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라는 큰 스님들의 말에 원고는 참고 버텨왔지만 결국 이는 스님의 몸과 마음만 망가트렸다”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2017년 5월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촉해서 지방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10월에 근로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사찰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에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다. 스님측은 위자료와 밀린 임금을 합한 860만엔(약 8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관광객 많은 익명 유명 사찰
과로에 스님은 우울증까지…
하루 17시간 방문객 접대하고
쉼 없이 64일 연속 근무했다

또한 스님은 이번 고소를 통해 많은 스님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이 과도한 업무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야산 개산 1200주년 기념을 위해, 고야산에서 수행하는 스님은 64일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어떤 날에는 17시간동안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쉼 없이 내리 일하기도 했다. 2017년에 교토시 정토진종 본산인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는 사찰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바 있다.

현재 일본서 과로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문제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까지 12개월간 접수된 과로사건만 191건으로 일본 근로자의 7%이상이 주당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사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아베 신조는 과도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혁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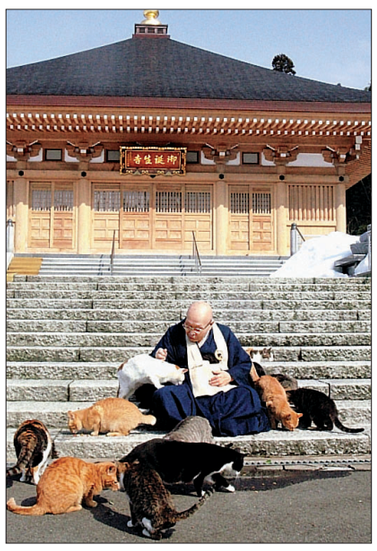
버려진 동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사찰서 유기동물 보호해 화제

일본서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5월 20일 일본 ‘후쿠이 신문’은 유기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에치젠시(越前市)의 사찰 고탄죠지(御誕生寺)를 소개했다.

고탄죠지는 일본 조동종의 중흥조 케이잔(瑩山)선사가 탄생한 곳에 세워진 유서 깊은 사찰이다. 그러나 최근 이 사찰은 ‘고양이 절’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주지인 이타바시 코슈(板橋興宗, 91)스님이 4마리의 유기 고양이를 절에서 키우기로 한 것이 계기였다. 고양이는 점점 늘어 현재 사찰은 23마리의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다.



고양이들과 놀고있는 주지스님.
사진출처=후쿠이 신문



절의 새식구가 된 골든리트리버 ‘앤디’.
사진출처=후쿠이 신문

고탄죠지는 “모든 고양이의 목에 목걸이를 채우고,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다. 책임을 가지고 고양이들을 보호하려한다”고 밝혔다. 사찰은 또한 유기묘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활동도 하고 있다. 주지인 이타바시 스님은 “고탄죠지에서 입양한 고양이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기가 좋다”며 웃었다. 또한 이런 사실이 주지 스님의 에세이나 블로그, SNS등을 통해 점차 소문이 나면서 현재 사찰에는 연간 약 3만 명의 참배객이 방문하고 있다. 경내에는 유기묘들을 위한 모금함이 있어 이 돈으로 사료와 치료비등을 충당하고 있다.

주지인 이타바시 스님의 ‘고양이 법문’도 인기다. 스님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수행에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법문을 한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 내용이다.

“고양이는 스님들처럼 좌선을 하거나 예불을 올리지도 않고, 바삐 움직이는 수좌들을 뒹굴거리며 볼 뿐입니다. 뒹굴거리면서 사람처럼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요.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가고,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마치 풍경이 바람이 불면 울리듯이 생각과 언어의 개입이 없는 단순하고 간단한 삶입니다.”

고양이만 있던 사찰에 최근에는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도 오게 됐다. ‘앤디’라는 이름의 개는 맹인안내견 시험에서 탈락한 개였다. 이나와시로 쇼슌(猪苗代昭順, 43)부주지 스님은 “안내견 훈련사였던 도반이 훈련에 탈락한 개들에 대해 얘기해줬다. 보통 갈 곳이 없어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개도 함께 키우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나와시로 스님은 “본래 고탄죠지는 선원이 있는 엄격한 수행도량이다. 하지만 절 경내 뜰에 개와 고양이들이 노닐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공간이 되었다.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이 격차야말로 이곳의 매력 아니겠는가”라며 웃어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지방정부, 인도 유학파 스님 탄압

“중국에서 불교 가르치기에 적합치 않다” 이유

해당 스님들 강의 전면 금지
일부 스님들은 추방당하기도

중국 지방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인도서 유학한 스님들의 강의를 전면금지하고 일부를 추방했다.

중국 사천성 지방정부가 리탕(Litang) 티베트 자치지구에서 일부 스님들의 강의를 금지하고, 그중 일부는 사원에서 추방했다고 5월 15일 ‘글로벌 타임스’ ‘스푸트니크 인디아’ ‘인디아 익스프레스’ 등 외신이 전했다. 이 스님들은 모두 남인도의 티베트 망명사원에서 유학한 스님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리탕지구의 소수민족 · 종교 민정사무국은 매년 시행하는 공식 애국교육에서 게쉐하람빠(Geshe Lharampa)들이 대중에게 법문하는 것 금지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사무국은 이들이 ‘분리주의적인 성향’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쉐하람빠란 티베트 불교의 학위인 ‘게쉐’중에서도 최고위 학위로 불교학 박사 겸 삼장법사에 해당된다. 사무국은 해당명단의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들은 모두 인도유학 후 돌아온 게쉐들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명령이 내려온 후 일부 게쉐들은 사원에서 추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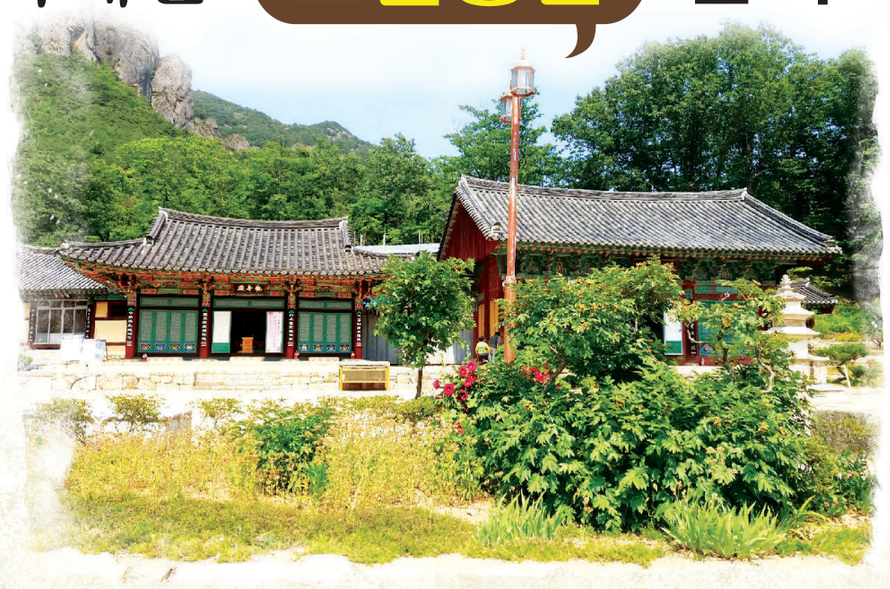
전 종교문제 위원장인 주웨이칸은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에서 “해외에서 부여된 게쉐학위는 중국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중국에서 불교를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달라이라마와 그의 정권이 티베트의 불교도를 이용해 분리 독립을 이루려는 시도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티베트 망명사회에서는 ‘지극히 종교적인 영역임에도 중국정부가 손을 뻗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출 · 재가를 막론하고 인도에서 공부를 마치고 티베트로 돌아간 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당 사안에 대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으며, 이 결정 티베트 자치구 전체에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앓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